

# “비리·특혜 없었다… 청문회서 의혹 해소”

29~30일 김황식 인사청문회

의혹제기 잇따라 관심 증폭

오는 29~30일 열릴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원의 의혹제기와 함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혹은 주로 김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된 것이 많으며 김 후보자 본인의 병역 면제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내용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6일 “비리나 특혜와 관련된 사실이 없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걱정을 안 끼치도록 진술하게 밝혀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야당은 김 후보자가 병역을 면제받은 경위에 대해 물고 들어지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71년에 자신의 형이 의사로 있던 병원에서 갑상선기능 항진증 진단서를 받아 정병검사를 연기하고 1년 뒤에는 부동시(不同視) 두 눈의 시력차가 커서 생기는 장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 김 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상 증여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2007년 5월 팔 결핵식 때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예금이 2억6000만원이나 있는데도 누나들로부터 2억원을 빌린 것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했다.

후보자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의료비 공제 액이 0원으로 된데다 재산등록 과정에서 채무 4000만원이 누락됐다가 나중에 신고했다는 점 등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급여액이 과소 계상됐고 지출 내역 중 후보자 가족의 실생활 비용과 무관한 액수가 계상돼 실제 수입·지출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후보자는 수입의 범위 내에서 공직자의 금도에 맞게 생활해 왔다”고 해명했다.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인 과세 대상 급여의 3% 미만이어서 기재하지 않았을 뿐 필요한 의료비는 상당액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또 재산등록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제무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오기(誤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2007년 5월 팔 결핵식 때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예금이 2억6000만원이나 있는데도 누나들로부터 2억원을 빌린 것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상 증여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2억원의 예금이 있으면서 누나 2명에게 2억원을 빌린 것은 2년 전 감사원장 청문회에서도 밝혔듯 혼사를 앞둔 동생에게 누나들이 뵈었을 때 깊으라며 부조해 준 듯”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누나가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신대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도 나왔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김 후보자가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직으로 갈 때마다 동신대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김 후보자는 동신대 문제에 일절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민주당 간사이인 김유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혼인 관계를 통해 족벌 사학과 연계돼 있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사학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상지대 관결시 사학법이 연합회가 제출한 탄원서에 김 후보자의 누나도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후보자는 (탄원서에 누나가 포함된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뿐 탄원서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휴일에도 모의청문회

김황식 후보 준비 만전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는 휴일인 26일 내부적으로 모의 청문회를 갖는 등 사흘 앞으로 다가온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교회 예배를 본 뒤 오후 직접 자신의 차량을 물고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했다.

김 후보자는 출근 전 기자들과 만나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리는 기자회견 않고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격정을 안 끼치도록 진솔하게 밝혀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사흘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모의 청문회는 정책과 신상 분야로 나뉘어 2~3시간에 걸쳐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휴식 직원들도 전날에 이어 휴일인 이날도 출근,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 자료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 여야 정기국회 전반 주도권 다툼?

### 공수대결 불꽃… 청문회 홍역 예고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수 대결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기국회 전반의 주도권을 가를하는 사안이어서 아래저래 한바탕 ‘청문회 홍역’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종의 초점을 총리의 자질과 정책 역량에 맞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가 과거 대법관 및 감사원장에 취임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 차례나 통과한 만큼 이미 도덕적으로는 검증된 인물인 만큼 야당의 정치 공세는 철저하게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나라당도 김 후보의 병역면제 논란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병역을 면제받은 다른 여권 핵심 인사들까지 거명되며 과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두 눈의 시력차에 따른 면제는 고의가 아닌 건강상 결함이었음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병역면제와 재산 및 증여세 포함, 사학재단에 대한 판결, 대강당 감사 발표 지역 의혹 등을 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김 후보자의 병역 면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김 후보자가 1968년과 1969년 징병검사를 연기한 데 이어 1970년과 1971년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호르몬 과다 분비)으로 재검 대상이 됐고 이를 통해 양쪽 눈의 시력차가 큰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았으나 2년 뒤 인 법관 임용시의 신체검사에서는 시력차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장기간의 약물치료와 정기 검진을 요하는 두 질환이 급격히 호전된 것은 의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2007년 장녀 결혼 때 누나 2명으로부터 2억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1억원만을 갚은 것에 대해 혼선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법관 재직시 비리 사학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도 김 후보자가 가족이 족벌사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를 마치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정권 코드 맞추기’ 아니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대북수해지원쌀 5000톤 내달 25일 출항

### 교주협 내일 의결… 생필품 포함

대한적십자사(한적)가 수해지원을 위해 북한에 보내는 쌀 5000t이 다음 달 25일 인천항을 출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남북교류협력추진 협의회(교주협)가 한적의 대북 쌀지원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서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28일 국회 보고를 거쳐 교주협 위원장인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80여 억원의 협력기금 지원 승인을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실제 북한에 보내는 쌀은 다음 달 25일 인천항을 출항해 단둥을 거쳐 북한 신의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적의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긴급구호품에는 쌀 5000t과 시멘트 1만t, 컵라면 300만개

등의 생필품과 의약품이 포함돼 있으며, 다음 달 25일 쌀 5000t을 시작으로 6000t급 화물선을 이용해 북측에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정부는 애초 긴급구호품 단가의 15% 정도인 운송비까지 고려해 남북협력기금에서 120억~130억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쌀값의 일부인 약 50억원 정도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양곡특별회계에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준비가 되는 구호품부터 단계적으로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다른 구호품도 쌀과 함께 보내기로 최종 결정됐다”며 “북측에 전달하는 2007년산 쌀의 정부관리양곡판매고시가격이 1t당 154만원인데 협력기금에서는 국제 쌀 가격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그 차액을 양곡특별회계에서 충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대통령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결단해야”

### 박지원 대표 촉구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한반도평화를 위해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재개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총리인 사장문특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북한이 상당히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이 때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 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또 “지금처럼 편향 외교를 해 중국과 긴장관계가 유지되면 우리가 살 수 없다”며 “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균형외교와 40만~50만t 규모의 대북 쌀지원을 통해 종국과의 관계개선을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총리인 사장문특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북한이 상당히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이 때 이산가족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미·일 유엔 총회서

### 북핵 6자회담 입장 조율

한·미·일 3국의 한반도당 대표들이 제65차 유엔총회 기간에 회동을 갖고 북핵 6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 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 유엔 본부에서 한·미·일 3자회담과 한·미 양자회동을 잇따라 갖고 그동안 대북 정책 노선을 다시 접두하고 6자회담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일은 3자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의 여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진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전체 대화과정에서 남북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6자회담과 관련해 3자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다른 나라들과도 긴밀히 협조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해외수감 한국인 1399명”

### 이정현 의원 “日·中·美에 집중”

각종 범죄에 연루돼 외국에 수감돼 있는 한국인이 1399명에 이르며 일본과 중국, 미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이 26일 외교통상부에게서 받은 ‘해외수감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10일 현재 해외에서 수감된 한국인 수는 모두 139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전체 해외 수감자 중에서 일본이 515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418명(29.9%), 미국 239명(17.1%) 순으로 재외국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들 3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미약사범이 2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209명, 절도 135명으로 강력범죄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재외국민들을 위한 법률적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제발 멈추기만 해도 땅큐죠**

빠지는 머리카락 개수에 신경 쓰이면 효과가 검증된 탈모증 치료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18세~65세 남성) 170명 대상 임상시험 결과, 모발 개수와 굵기가 증가되어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검증된 탈모증 치료제  
마이녹실**

## ■ 마이녹실 임상결과

### 참여자의 92.9%가 효과 확인



전국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 170명을 대상으로 마이녹실 5% 24주간 임상시험 결과, 158명 즉 92.9%가 호전되어 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남성형 탈모증 환자에 대한 5% Minoxidil 의용액의 공개 다기관 임상연구(제4상 임상시험, 대한모발학회 공동연구) – 대한 피부과학회지 2009년 3월호 발표

### ■ 임상연구 참여기관

기丢리대학교 강남성모병원, 경북대학교 병원, 경희대학교 병원, 동서신의학병원, 고려대학교 병원, 관동의대 명지병원, 동아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부산백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원주기독병원, 인제대학교 병원, 인하대학교 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충남대학교 병원, 충북대학교 병원(이상 기관과 협약 기관)

1일 2회 4개월 이상 꾸준히 바르십시오.

제품 문의 | 080-024-5525  
02-2600-3884

▶ 검색어 ▶ 검색창에 마이녹실을 치십시오 ▶ 검색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



스마트폰 어플로  
스캐너보세요

바르는 탈모치료제  
**마이녹실**